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앙수양회 세째날 아침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의해 이 자리에 있음을 알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동안, 세상에 속한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맑은 영성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이틀 동안 신앙강좌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한 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희망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지체되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룩한 섬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되시는 하나님,
힘차게 출발한 2016년, 어느덧 한 달 남짓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아직 육체의 힘이 있을 때,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숭실대학이 품고 있는 소망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의 시간에 세밀하게 보여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위에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믿던, 헛된 모든 것, 끊어질 주님의 날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반석같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 질 것을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기도시간 :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제43회 숭실가족신앙수양회 세째날 (7시 30분)